

본격 장마인데…구례 ‘서시교 철거·존치’ 답보 여전

대책위, 1만465명 서명 달성
“수해 서시교 무관 과잉 대응”
익산청 “법적 기준이 재가설”
권익위 조정, 새국면 맞을까

전라남도 구례군의 서시교가 철거와 존치 사이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또다시 장마철을 맞았다. 서시교 재가설 공사 주체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여전히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으로, 지역 주민들은 최근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하고 국가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

29일 서시교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23일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운동 냉천리 발대식’을 진행한지 48일 만인 지난 10일 1만465명이 동참하며 ‘1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서시교대책위는 지난해 2월부터 서시교 주변과 다리 위 인도에서 매일 서시교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서시교 존치 운동을 진행해 왔다.

이들은 수해 방지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시교 철거와 재가설 계획에 대해 “서시교는 수해의 원인이 아닌데도 과잉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시교는 섬진강의 지류인 서신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길이 150m의 4차선 교량으로, 구례읍과 마산·토지·간전면 등 3개 면을 비롯해 광양시, 경남 하동군을 잇고, 하루 평균 60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의 대동맥으로 불린다.

이와 같은 서시교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 행정 당국의 갈등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을 포함한 5개 댐의 동시 방류로 구례를 포함한 전남·경남 지역이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구례군 서시교와 연결도로.

서시교대책위원회 제공

당시 구례는 전체 피해액 3800억원 중 군이 공식 집계한 재산 피해액만 1807억원에 달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구례에서만 이재민 1149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711동, 상가 597동, 시설하우스 509동, 축사 49동 등이 훼손됐다.

이후 익산청은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수립된 하천기본계획(2023년 11월)에 따라 서시교 철거 또는 3.1m 승상 재가설 방안을 제시했다. 홍수 발생 시 다리 아래 수위가 높아져 교량 위로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서시교를 철거하고 인도교만을 새로 설치, 남쪽 하단부로는 1200m의 도로를 신설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시속 80km의 산업도로인 우회도로는 기존 서시교가 제공하는 교통 접근성과 편리함에 비해 주민 교통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더욱 불리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m 이상 승상할 인도교 재가설 역시 고령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서시교는 수해 당시 침수되지 않았고, 환경부 보고서에도 존치 가능한 안전한 교량으로 명시돼 있다”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적용된 여유고 2m, 계획홍수위 29.4m는 섬진강 분류 기준



구례군 주민들이 서시교 존치를 위한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시교대책위원회 제공

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시천의 실제 계획홍수량은 본류의 약 11.6% 수준에 불과하지만, 분류 기준이 일괄 적용된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적이지 과잉 적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그동안 익산청과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인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례군, 구례군의회 등은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전문가가 초청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서시교 재가설에 따른 대안을 찾고자 했지만, 번번이 견해 차이만 확인했다.

김창승 서시교대책위 상임대표는 “노령화 심화 속에 교통 인프라는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멀쩡한 다리를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시대 역행적이다”며 “기본계획은 주민 의견 없이 소급 적용됐고, 설명회는 형식적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1만명 서명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익산청과 영산강청은 홍수위, 여유고 등의 기준은 섬진강댐 방류값과 서시천 합류부 수위 등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고시된 하천기본계획 수치는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홍수위, 여유고 등의 기준은 섬진강댐 방류값과 서시천 합류부 수위 등을 기반으로 정상적으로 계산된 것”이라며 “주민들은 기점 수위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기본계획은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설계됐고 수위 저감 효과도 충분히 검토했다. 이 부분 역시 설명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설득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익산청 관계자는 “서시교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재난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등 법과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분들의 요구가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정의 여지는 언제나 열려있다”고 전했다.

구례=김상현 기자·곽지혜 기자

페루, 여수세계섬박람회 참가 결정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 공유”

남아메리카 페루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참가를 결정했다.

29일 (재)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는 지난 27일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참가의향서에 서명했다.

페루는 3000km에 달하는 긴 태평양 해안선을 보유한 나라로, ‘작은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바예스타 섬, 티티카카호수의 우로스 섬 등 섬 문화와 해양 생태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참가 결정을 통해 페루는 자국의 풍부한 섬 자원과 문화를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며 국가의 날 행사로 운영되는 ‘페루의 날’에 페루 전통 음악 공연단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로디 주한 페루대사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 생태계 보존이라는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섬박람회를 통해 페루가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섬 자원의 다양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김종기 사무총장은 “페루의 참가 결정은 중남미 국가들의 참가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메리카 대륙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다양한 국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위는 페루를 포함해 필리핀, 팔라우, 일본, 베트남 5개국의 참가를 확정했다. 중국, 말레이시아, 세네갈, 동티모르, 스리랑카 등 14개국과 참가를 협의 중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김경일 교수 초청 ‘청렴콘서트’
7월18일 보성군 문예회관에서

전라남도 보성군이 오는 7월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를 초청해 ‘청렴콘서트’를 개최한다.

‘청렴콘서트’는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청렴 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이다.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콘서트는 ‘행복은 청렴한 마음에서 온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 교수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청렴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청렴의 태도 및 청렴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 예정이다.

김 교수는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로, 복잡한 인간 심리를 쉽고 유쾌하게 전달해 호응을 받아왔다.

이날 강연 역시 청렴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유쾌하고 공감력 있게 풀어내며 참석자들의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콘서트는 별도의 사전 접수 없이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되며, 무료로 개방돼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청렴콘서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기획예산실(061-850-5044)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양중수 기자

장흥힐링테라피센터 개관… 복지·치유 거점 기대

전라남도 장흥군의 ‘힐링테라피센터’가 개관했다.

29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힐링테라피센터는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장흥읍 중심지에 연면적 1,295㎡,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 26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복합공간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와 생활공예전시관이 마련돼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지원, 2층에는 동아리실과 마을방송 스튜디오가 들어서 주민 대상 교육, 훈련, 홍보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3층에 위치한 테라피실에서는 생약초를 활용한 힐링 및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외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장흥군은 센터 운영을 장흥군신활력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해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치유 관광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



지난 26일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장흥힐링테라피센터 개관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을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장흥읍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장흥힐링테라피센터가 지역 문화와 복지 증진, 공동체 활성화의 기반

이 되고, 생약초를 활용한 치유 공간으로서 장흥의 매력을 외부에 알리는 새로운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그린바이오 ‘뷰티안티폴A’ 출시
순천바이오연구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출연기관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가 생물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너뷰티 제품 ‘뷰티안티폴A’를 공식 출시했다.

2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국내산 아로니아와 순천 이바존농원 산물배를 활용한 프리미엄 음료로, 상큼한 풍미와 건강 기능을 겸비한 웰니스 식음료다.

‘뷰티안티폴A’는 순천바이오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축적해 온 아로니아 생물전환 원료 개발 노하우와 2023년부터 지역 특산물인 순천시 로컬푸드 산물배를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결과를 결합해 탄생한 제품이다.

두 원료 간의 시너지와 순천바이오센터의 독자적인 생물전환 플랫폼 기술이 만나 차별화된 맛과 기능성을 모두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 출시는 순천시와 순천바이오센터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산업 전주기 실현’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배서준 기자